

‘해고 노동자 복직’ 위해 달린 ‘리멤버 희망버스’ 교통체증과 시민불안에 주목한 부산일보

지난 12월 19일 전국 각지에서 출발한 ‘희망차량’이 부산 영도에 모여들었습니다. 한진중공업의 마지막 남은 해고노동자 김진숙(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씨의 복직 투쟁을 응원하기 위한 차량 행렬이었습니다.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85호 크레인에 올랐던 김진숙 지도위원과 함께했던 9년 전 그날처럼, ‘해고 없는 세상’,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의 펼침막을 단 차량들이 김진숙 지도위원 복직을 응원하기 위해 영도에 다시 모인 겁니다.

‘리멤버 희망버스’ 집회가 열렸던 12월 19일(토)부터 21일(월)까지 포털을 통해 해당 소식을 전한 기사를 확인해 봤는데요, 총 14건의 글 기사가 있었고 이 중 5건이 부산 지역언론 기사였습니다.

매체	배치	헤드라인
부산MBC	첫 소식 리포팅	9년 만의 희망버스...“김진숙 복직 염원”(12/19)
연합뉴스	온라인	부산서 한진중공업 김진숙 해고노동자 복직 촉구 ‘희망버스’(12/19)
부산일보	온라인	9년 만에 영도 찾은 ‘리멤버 희망버스’...“김진숙 복직 촉구”(12/19)
한겨레	온라인	이달 정년 맞는 용접공 김진숙 ‘복직 희망 차량’ 9년만에 달렸다(12/19)
민중의소리	온라인	김진숙 복직 위해 9년 만에 부산 찾은 ‘희망버스’...“복직 없는 정년 없다”(12/19)
오마이뉴스	온라인	“복직없이 정년없다” 9년 만에 달린 김진숙 희망버스(12/19)

국제신문	온라인	부산 영도 찾은 '희망버스'...김진숙 해고노동자 복직 촉구(12/19)
노동과 세계	온라인	'김진숙 복직'위해 9년 만에 영도 찾은 희망버스(12/19)
KBS부산	단신	"김진숙 복직 촉구"...9년 만에 달린 희망버스(12/19)
폴리뉴스	온라인	김진숙, "해고없는 세상, 죽지 않고 일할 권리"(12/20)
한겨레	12면 3단	9년 만에 다시...100개 도시서 모여든 '희망버스'(12/20)
부산일보	10면 2단	주말 대규모 차량 집회에 도심 '몸살'(12/20)
경향신문	1면 2단	"김진숙 복직을" '희망 차량' 행진(12/20)
매일노동 뉴스	온라인	9년 만에 달린 희망버스 "복직 없는 정년은 없다"(12/21)

▲ 포털에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희망버스'라고 검색한 결과 중 글 기사 제목 목록

14건의 기사 중 부산일보의 <주말 대규모 차량 집회에 도심 '몸살'>(12/20)을 제외하면 모두 기사 제목에서 '9년', '김진숙', '복직', '희망버스'를 언급하며 9년 전 희망버스와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투쟁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일보도 12월 19일 온라인 기사에는 <9년 만에 영도 찾은 '리멤버 희망버스'... "김진숙 복직 촉구"> 라는 제목을 통해 다른 언론사와 비슷한 논조로 '희망버스' 집회 소식을 전달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21일 지면에 실린 기사는 <주말 대규모 차량 집회에 도심 '몸살'>이였습니다. 총 6단락으로 구성된 해당 기사는 첫 단락에서부터 '부산지역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1500명을 넘어섰다'며 희망버스의 의미보다는 집회로 인한 교통 정체와 감염 확산을 우려했습니다. 2,3단락에선 19일 열린 '리멤버 희망버스'의 비대면 집회 형식을 중점적으로 전했습니다. 이어 4단락에선 같은 날 있었던 다른 차량 집회를 언급했고, 5단락에선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집회로 인한 교통난, 6단락에선 코로나 확산을 우려하는 시민 불안과 함께 "집회를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시민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해당 기사와 함께 게재된 사진도 눈에 띄었는데요, '리멤버 희망버스' 집회의 취지나 현장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 희망정류소를 지나는 차량 행렬이나 35타종 행

사, 유튜브 방송 등의 모습을 선택한 다른 언론사와 달리 부산일보는 기사의 내용과 동일하게 차량들이 얽혀서 정체되어 있는 순간을 선택했습니다.

주말 대규모 차량 집회에 도심 '몸살'

'리멤버 희망버스' 등 잇단 시위 시민들 "코로나19 감염 불안"

부산지역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1500명을 넘는 가운데 주말동안 부산 곳곳에서 차량 집회가 이어졌다. 주최 측은 비대면 방식이라 참여자의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봤지만 일부 시민들은 교통 정체와 코로나 확산을 우려했다.

19일 오후 4시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정문 앞. 2시간 전 시작된 '리멤버 희망버스' 집회에 참여한 차량 50여 대가 1개 차로를 따라 수백m 늘어섰다. 이들은 35년 전 한진중공업에서 해고당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복직을 촉구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참여 차량에는 '김진숙 복직'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있었다.

주최인 민주노총 부산본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각지에서 410대의 차량이 영도에 모였다. 사전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면 참여 차량은 500대가 넘을 것으로 주최는 추산했다. 민주노총 부산지부 김진숙희망버스기획단 남영란 대변인은 "이번 집회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비대면 방식인 '드라이브스루'로 진행했다. 차량에 탄 집회 참여자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49대 씩 무리를 지어 영도 일대를 순환했다"고 말했다.

이런 차량 집회는 부산 곳곳에서 이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과 '우리공화당 부산시당' 주최로 '현 정부 퇴진 차량 행진'이 이어졌다. 이 집회에 참여한 70명은 차량 40대를 타고 부산 동래구 사직야구장, 서구 압남공원, 해운대구 요트경기장 등 부산 주요 지역을 행진했다.

드라이브스루 방식 집회는 참여자 사이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도심 곳곳에 교통난을 빚었다. 경찰은 '리멤버 희망버스' 집회 시간 동안 한진중공업 앞을 포함한 영도 각지에 4개 중대를 투입했다. 경찰 1개 중대는 약 70명이다. 영도 안에 차량 수백대가 한 번에 몰리면서 교통 정체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도의 도로 상황과 집회 참여 차량 수 등을 고려했을 때 일부 교통 정체가 예상돼 관련 인력을 투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차량 집회'임에도 시민들은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불안을 호소했다. 한진중공업 앞 집회 현장을 지나던 김창민(41·영도구 동삼동) 씨는 "차량 집회라고 해도 특정 장소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걸 봤다. 집회 주최자들도 결국 차에서 내려 뭔가를 하지 않느냐"면서 "최근 코로나 경로 안내 문자가 자주 와서 불안한데, 사람이 몰리는 집회는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이상배 기자 sangbae@



지난 주말 한진중공업 '리멤버 희망버스' 행사(사진)와 보수단체의 차량 시위 등 부산지역 곳곳에서 드라이브스루 집회가 열려 일부 시민들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나타냈다.

▲ 부산일보, 12월 21일, 10면

김진숙 지도위원이 복직 투쟁을 이어온 지난 6개월 동안 부산일보는 ‘김진숙 지도위원 복직’과 관련해 글 기사 3건, 사진 기사 1건, 칼럼 1건을 실었습니다. 글 기사의 경우 복직 투쟁 시작을 알리는 기사 1건, 희망버스 집회 예고 기사 1건 그리고 집회로 인한 교통난, 감염 확산을 우려한 기사 1건이었습니다.

‘희망버스’ 상징 김진숙 지도위원 ‘해직 35년’ 한진중공업 복직투쟁

오늘 영도조선소 앞 기자회견

‘희망버스’로 잘 알려진 한진중공업의 마지막 해고 노동자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복직 투쟁을 벌인다.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이하 노조)는 23일 오전 11시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앞에서 김 위원과 함께 그의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김 위원은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85호 크레인에 올라 309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그를 응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5차례에 걸쳐 운행된 이른바 ‘희망버스’로 인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는 부산을 넘어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김 위원은 1981년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 용접공으로 입사했고, 1986년 노조 대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이후 집행부의 여성성을 폭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 복직 투쟁을 벌인다. 부산일보DB

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경찰 대공분실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회사에서 징계 해고됐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당시 김 조합원이 배포한 유인물은 노조 대의원대회를 다녀온 소회를 적은 지극히 평범한 내용이었다. 노조 대의원으로서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그러나 김 위원은 35년이 지난 지금까지 현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배 기자 sangbae@

▲ 부산일보, 6월 23일, 11면

“김진숙 복직시켜라” 19일 ‘리멤버 희망버스’

부산 한진중공업 앞으로 ‘희망버스’가 9년 만에 온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인데, 일부 시민은 코로나 사태에 잇따라 열리는 집회를 두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영도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정문 앞에서 ‘리멤버 희망버스’ 집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전국 100개 도시에서 350여 대의 차량이 영도로 집결해 김진숙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복직을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퇴직 시기를 보름 앞둔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병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김진숙 해고는 부당한 공권력의 탄압에 의해 이뤄졌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부산시의회에서 김진숙의 복직을 권고했지만 계속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더는 미룰 수 없기에 희망버스로 마음을 모으고자 한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드라이브스루’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 부산일보, 12월 15일, 6면

지역언론의 무관심 속에서 정년을 앞두고 마지막 복직 투쟁을 이어 온 김진숙 지도위원, 그를 응원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차량 행렬에 대해 6개월간 단 3건의 기사를 작성한 부산일보는 ‘교통난’과 ‘코로나 확산’ 우려만을 기록했습니다.